

# 여수 총무고 김민섭, 수영 국제대회 금메달

### US오픈 챔피언십 접영 200m 우승...올해 초 수술·발목부상 딛고 부활 중학생때 광주세계선수권 출전 화제...내년 아시안게임 메달권 진입 목표

김민섭(여수 총무고 2년)은 여수 문수중 3학년 때 쟁쟁한 성인 선수들을 제치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화제를 모았다. '한국 남자 접영의 기대주'였던 그는 올해 도쿄올림픽 무대에 서지 못했다. 여수총무고에 진학한 뒤 올림픽 출전의 꿈을 키웠지만 올해 초 발목 수술과 발목부상이 겹치면서 재활을 거듭했다. 그가 세계무대에서 부활의 날개를 폈다.

6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김민섭은 지난 4일 미국 그린즈버러에서 열린 '2021 US OPEN swimming championships' 대회 접영 200m에서 2분00초7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 대회는 37년 역사를 보유한 국제 이변트로 국제수영연맹(FINA) 기준기록을 통과해야 출전할 수 있다.

대회에서 4번 레인을 배정받은 김민섭은 5번 레인의 황보준현(경기고 2년)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황보준현은 올해 전국체육대회 남자 고등부 2관왕이다.

김민섭은 이날 기록을 선보였다. 오전에 접영 200m 예선을 치른 뒤 오후에 자유형 1500m(8위·15분42초10) 결승을 치르고 다시 접영 200m 결승에 나서 정상에 섰다. 전날 치러진 개인혼영 400m에서도 4위(4분22초86)에 올랐다.

김민섭은 경기가 끝난 뒤 "지난 국가대표 선발전

기록에 못미쳐 아쉽지만, 금메달을 획득해서 기쁘다"며 "앞으로 꾸준히 경험을 쌓아서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대표 후보인 김민섭의 목표는 2022년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다. 내년 9월 아시안게임 메달권 진입이 1차 목표다.

안중택 여수 총무고 수영코치는 "수영은 한종목만 집중하게 되면 체력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을 훈련하고 있다"면서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다양한 영법을 익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섭은 아직 성장하는 단계고 배워야 할 게 많다"면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메달권은 아니지만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훈련하는 만큼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섭은 2019년 5월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남자부 접영 200m에 출전해 1분58초12의 기록으로 성인, 실업팀 선배들을 제치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같은 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대한민국 남자 경영 대표 선수 가운데 유일한 중학생이었다. 2004년 박태환이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한 이래 두번째로 세계대회에 출전한 중학생 국가대표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4일 열린 2021 US오픈 수영 챔피언십 접영 200m에서 우승한 여수 총무고 김민섭. <전남도체육회 제공>

# 15연패 뒤 6연승 '대반전'

## NBA 휴스턴, 뉴올리언스 제압

미국프로농구(NBA) 휴스턴 로키츠가 15연패 뒤 6연승을 내달렸다.

휴스턴은 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도요타 센터에서 열린 2021-2022 NBA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118-108로 제압했다.

최근 6연승을 질주한 휴스턴은 시즌 7승 16패를 쌓아 서부 컨퍼런스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휴스턴은 이번 시즌 두 번째 경기였던 10월 23일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와의 경기에서 대승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무려 15연패를 당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시카고 불스를 잡고 연패에서 벗어난 것을 시작으로 최근 6연승의 상승세로 완전한 반등에 성공했다. 서부 컨퍼런스 최하위를 맴돌던 순위도 조금 올라섰다.

이날은 에릭 고든과 크리스천 우드가 23점씩을 넣어 승리에 앞장섰다.

이들을 필두로 휴스턴의 선발로 나선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유타 재즈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109-108 신승을 거두고 4연승 행진 속에 서부 컨퍼런스 3위(16승 7패)를 지켰다.

살럿 호니츠는 라멜로 볼, 테리 로지어 등 4명의 선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프로토콜에 따라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애틀랜타 호크스를 130-127로 따돌려 3연패에서 탈출, 동부 컨퍼런스 6위(14승 11패)에 올랐다.

/연합뉴스

# 광주대 태권도 전국선수권 금 2·은 3·동 2

### 유정민·이원준 금메달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태권도부가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광주대는 최근 전북 고창군체육관에서 열린 '제48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포함 5개 메달을 수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정민(1년)은 여자부 -46kg급, 이원준(1년)은 남자부 -87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부 -73kg급 조하은(2년)과 남자부 -63kg급 송성현(1년), 여자부 -63kg급 김가영(1년)은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다.

여자부 -62kg급 유효경(1년), 남자부 -68kg급 박정규(1년)는 동메달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전북도태권도협회와 고창군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 품새와 태권경연, 태권체조, 격파, 체급별 겨루기에 54팀 1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제48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주대 태권도부. <광주대 제공>

광주대 태권도부 강경도 감독은 "전국대회에서 연이어서 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만큼, 이 기세를 몰아서 더욱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최혜진·안나린, LPGA투어 진출 굳히기

### Q시리즈 1차 대회 나란히 2·3위

최혜진(22)과 안나린(25)이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진출을 사실상 굳혔다.

최혜진은 6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RTJ 마그놀리아 그로브 골프장 크로싱스 코스(파72)에서 열린 LPGA투어 Q시리즈 1차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69타로 2위에 올랐다.

19언더파 267타를 쳐 1위를 차지한 폴린 루생-부샤르(프랑스)에 2타 뒤진 제 1차 대회를 마친 최

혜진은 오는 9일부터 나흘 동안 치러지는 2차 대회에서 수석 합격을 노린다.

LPGA투어 Q시리즈는 4라운드 72홀 1차 대회로 70명을 추려낸 뒤 4라운드 72홀 대회를 한 번 더 치러 순위를 정한다.

Q시리즈 2차 대회까지 45위 이내에 들면 내년 LPGA투어 카드를 받지만, 안정적으로 출전하려면 20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2차 대회는 1차 대회 성적을 안고 치르기에 2타차 2위로 1차 대회를 마친 최혜진은 강력한 수석 합격 후보로 자리 잡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통산 10승을 올리고 대상을 3년 연속 받는 등 국내 최강자로 군림한 최혜진은 이번 Q시리즈에서 나흘 내내 60대 타수를 적어내는 안정된 경기력을 과시했다.

1차 대회 4라운드에서 모두 60대 타수를 친 선수는 최혜진과 루생-부샤르 둘 뿐이다.

최혜진은 "이번 주 경기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만, 실수도 있었다. 사흘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다음 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LPGA투어에서 2차례 우승한 안나린도 3위(14언더파 272타)로 1차 대회를 마쳤다. 이날 6타를 줄인 안나린 역시 루생-부샤르, 최혜진과 수석 합격을 놓고 경쟁할 발판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광주시검도회는 지난 3일 금수장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비롯해 '광주시 검도회 발자취'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광주시검도회 제공>

# 광주시검도회 뜻깊은 한해 마무리

### 회장 이·취임식, 지역 검도사 출판 기념회...송년의 밤 행사도

### 우수 선수·지도자상 시상

광주시검도회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시검도회는 지난 3일 금수장호텔에서 최영훈 전임 회장과 김상범 신임 회장 이·취임식을 비롯해 '광주시 검도회 발자취'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2021년 광주검도 송년의 밤 행사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이임한 최영훈 회장은 2001-2020년까지 20년 동안 광주 검도 저변 확대와 검도인들의 화합을 위해 헌신했다. 재임 기간 검도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수 배출해 광주 검도의 위상을 끌어올린 주역이다.

신임 김상범 회장은 광주시검도회 이사, 부회장직을 맡아 2021년 채운토건 여자실업팀을

창단했다. 채운토건은 대한검도회 우수단체상을 수상하는 대표적인 여자 실업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서 선보인 '광주시 검도회 발자취'는 1971-2020년까지 50년 광주 검도 역사를 수록한 책이다. 지역 검도사가 출간된 것은 국내 검도계에서 드문 사례다.

송년의 밤 행사도 풍성하게 치러졌다. 광주검도 대표로 활약한 선수, 지도자가 광주시검도회의 상을 받았다.

박기주(서석중), 임지문-안태준-정우진-김영운-조도현(이상 서석고), 양 욱(조선대) 김민규(북구정), 전지윤(여자일반부)은 우수선수상, 서석고 이강산 감독, 남태운 코치는 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 45 북위 45도 이상 |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